



##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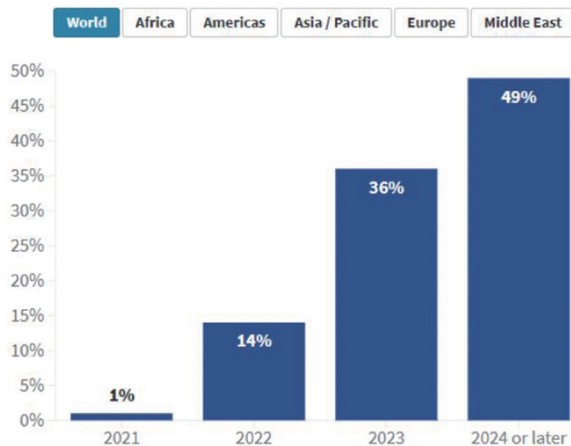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회 곳곳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역 간 이동 감소, 외출 자제 및 집에서 보내는 시간 증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인터넷 쇼핑 증가,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 확대 등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희망하는 활동 1위로 여행을 선호하며, 코로나 시대 속 여행자들은 가까운 곳 여행 선호, 농촌관광, 도로여행, 자연 등 야외활동 선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로컬관광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sup>1)</sup>

그런데 관광산업은 코로나 19 발생과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sup>2)</sup>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세계 관광에 있어서 2020년은 역사상 '최악의 해'로 기록되고 있으며, 국제관광객은 2019년 14억 5,900만 명에서 84%인 10억 명 이상 급감하여 3억 7,90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sup> 이에 따른 세계 관광업계의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액은 1조 3,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코로나 백신과 트래블 버블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관광 시장 회복은 2023년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sup>4)</sup>

[그림 1] 세계관광기구 국제 관광산업 전망 보고서

When do you expect international tourism to return to pre-pandemic 2019 levels in your country?



UNWTO conducted a global survey among its UNWTO Panel of Tourism Experts on the impact of COVID-19 on tourism and the expected time of recovery. Data as collected by UNWTO, May 2021. Published: 31/05/2021

출처 : 세계관광기구(UNWTO), 2021.

- 1) "위드 코로나 시대, 관광 패턴 확 바뀐다? 제주의 대안은?", 제주소리, 2021. 09. 19.
- 2) 황희(2021), 코로나 19 극복과 미래 관광전략 준비에 집중: 2021년 관광정책 중점 추진 방향, 『한국관광정책』, NO.83.
- 3) 송재호(2021),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의 의의와 방향: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미래, 『한국관광정책』, NO.84.
- 4) "UNWTO, 코로나 인한 세계 관광산업 손실 '4조 달러'", 뉴스비전, 2021. 07. 01.

이런 침체 위기 속에서도 회복탄력성이 큰 관광산업의 특성상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격리와 봉쇄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보복 관광에 나서면서 관광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광주시에서도 코로나 이후 국내 관광수요의 급격한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비예산 확보, 전략적 관광자원 인프라 개발에 한창이다. 지난해 코로나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위축됐던 관광수요가 올해부터 국내관광을 중심으로 회복될 조짐을 보이자 국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광주관광 붐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래서 호수생태원과 증심사 일대를 중심으로 한 무등산권과 아시아문화전당이 소재한 도심권, 비엔날레와 시립미술관이 소재한 중외공원권, 근대 선교사와 광주 예술인들의 숨결이 살아 있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등 권역별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엮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또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개발 집중 투자로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2천166억 원 규모의 예산을 2023년까지 투입할 예정이다.<sup>5)</sup>

이렇듯 위드 코로나 시대 관광수요 증가와 새로운 여행 패러다임에 맞춘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지속가능한 광주관광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위드 코로나시대, 관광정책 방향

### 1) 왜 관광은 더 중요해지는가?

관광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며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관광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07조 9천억 원이었으며,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취업유발효과 95.4만 명, 생산유발효과 171조 원이었다. 특히 관광산업은 2015년~2019년 연평균 24.8%가 성장하는 유망서비스업으로서, 관광 수입을 단순 수출산업으로 보았을 때는 2019년 기준 215억 1천만 달러로 주요 수출상품인 철강(186억 달러), 디스플레이(206억 6천만 달러)보다도 더 높은 수출 규모를 달성했을 정도로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부분도 크다.

여행으로 관광을 구체화하면 시장 수요는 금방 체감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장 원하는 여가 활동으로 단연코 여행이 1위(통계청, 2017년)로, 실제 1인당 GDP가 평균 3만 달러를 넘기면서 경험 소비형의 여행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코로나 19 이후 해외여행이 멈추면서 상대적으로

5) “[포스트 코로나시대 광주 관광산업 돌파구를 찾자](1) 프롤로그-포스트 코로나 지역관광 산업 현실. 광주매일신문, 2021. 04. 07.

국내 여행이 보완재로 자리매김하고, 주 52시간 근무제에 힘입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생활 트렌드가 정착되어 문화와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욕구가 늘어났다.

## 2) 변화하는 트렌드: 지역 브랜딩이 핵심

대도시만큼 많은 자원이 없어도 관광객들에게 고품질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글로벌 관광객의 흐름이 대도시에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Richards & Duif, 2019). 호텔스닷컴에서 조사한 여행 버킷리스트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밀레니얼 6,788명 중 35%가 관광지보다는 작은 지방 도시를 방문하고 싶다고 응답했다(이코노미조선, 2017).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은 코로나19로 더욱 증가됐다. 2020년 에어비앤비에서 발표한 2021년 여행 트렌드에 따르면, 사람들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중소도시 여행을 선호하며 응답자 25%가 집과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 지역관광에서 중요한 이슈는 지역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테르와(terroir)라 불리는 지역의 독특한 향미를 관광객들이 향유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오익근, 2021).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유사한 자연자원이나 문화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있어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마케팅 차원을 넘어서 지역 고유의 DNA를 발견하는 지역 브랜딩 전략이 중요하다. 지역만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결과적으로 지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 주도 로컬 관광은 문화유산, 문화자원, 자연경관 등 지역을 새로운 자원으로 바라보고 있다.<sup>6)</sup>

뿐만 아니라 지역의 DNA 측면에서 문화유산은 국가 및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관광브랜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화관광자원이며, 우리나라의 고유한 관광콘텐츠이자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로서 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3) 지역 핵심문화 자원: 문화유산

문화관광(Cultural Tourism)은 문화적 환경과 문화에 초점을 맞춘 관광 형태로, 가치, 라이프스타일, 전통, 산업 등이 포함된다. 문화관광의 한 유형인 문화유산관광(Cultural Heritage Tourism)은 지역을 찾은 관광객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과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는 관광 활동이다. 전 세계적 중산층 성장으로 문화유산관광은 상류층 전유물이었던 문화유산과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문화를 학습하고 체험하고 싶은 관광객의 욕구와 수요가 커

6) 오익근(2021), 지역 주도 관광의 로드맵, 『한국관광정책』, NO.83.

지면서 성장하게 되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문화유산관광은 문화유산을 관광 매개수단으로 국가와 지역의 경제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에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정신적 풍요로움을 고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문화유산 공급자인 문화재 관리자와 소유자는 문화유산의 공개·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입장료 등 직접 수입과 숙박, 쇼핑, 음식 등 간접 수입 확대로 지역과 주민, 나아가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관광객은 휴식이나 기분전환을 통해 새로운 환경과 접촉함으로써 고품질의 고양과 경험을 축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문화재청, 2008). 국내관광(domestic tourism)에서는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시키며, 국제관광(international tourism)에서는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제고시켜 결과적으로 이해와 평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한다(UNWTO, 2001).

국민의 역사문화에 대한 향유 욕구가 높아지고 삶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다양한 정책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주무부처인 문화재청과 유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유산 관광 활용에 대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과 같이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유산과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 관광활성화 사업, 체험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정부 지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구분	내용		유형	기간	세부내용
문화 체육 관광부	전통문화 체험지원	템플스테이	관광	2004년~	전통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전통문화 체험시설	관광	2004년~	전통사찰 관광상품화, 서원향교 문화관광프로그램
		전통문화 관광활성화	관광	2004년~	체험,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관광콘텐츠 개발·홍보
문화 재청	문화재 안내판 정비		인프라	1983년~	안내판 정비(녹슬거나 오·탈자 정비)
	궁궐 활용사업		관광	1995년~	4대 궁궐과 종묘 관광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인프라	2005년~	문화유산 관광자원 기반 구축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생생문화재	교육	2008년~	문화재 활용 교육프로그램
		향교·서원	교육	2014년~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
		문화재야행	관광	2016년~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
		전통산사문화재	교육/향유	2017년~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
	고택·종가집	관광	2020년~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홍보	2013년~	세계문화유산·기록문화유산 홍보	

출처: 문화재청(2004, 2020), 문화체육관광부(2019) 자료를 토대로 정리

ISSN 2672-2013

2021. **09.**

경제문화공동체

# 더함 포커스

The Community of Economics and Culture  
DEOHAM FOCUS

Vol.3

No.3

2021. 09. Vol.3 No.3



## 01 플랫폼: 지역혁신의 아이콘이 되다\_ 선봉규

최근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비즈니스 세계뿐만 아니라 사회혁신을 위한 아이콘으로써 적극 활용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교육부의 지역혁신플랫폼이 출범하면서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플랫폼이 지역혁신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방·공유·협업의 가치에 기반한 참여 주체 간의 협력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각각 지향하는 지역 문제해결과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02 위드 코로나시대, 문화유산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로컬관광(G-관광) 생태계 조성\_ 이숙영

위드 코로나시대 관광수요 증가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춘 여행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의 DNA 측면에서 문화유산은 국가 및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관광브랜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화관광자원이며 우리나라의 고유한 관광콘텐츠로 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관광적 측면에서 문화유산의 적극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광주관광의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03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실태와 권익개선 방안\_ 오창민

청년프리랜서는 부당계약, 불공정 과업, 보수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에 있어 보호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이를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만 다루는 것은 문제이다. 광주 청년프리랜서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업종별 표준계약서 작성, 적정 단가 산정 및 보장 방안 마련, 인권침해나 계약 관련 법률상담, 피해구제 지원 등이 이루어지길 원하나, 현재 지역에서 프리랜서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할 기관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프리랜서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공정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치, 프리랜서 조직화 지원, 프리랜서 전문성 제고 및 경력형성 지원, 사회안전망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04 로컬 거버넌스의 표상과 실상\_ 서정훈

로컬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참여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에 있다. 로컬 거버넌스가 파트너십에 기초한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시민과 협력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정착될 필요가 있다.

더함 경제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더함 포커스』는  
시민활동가 샘치과 손정수원장님의 사랑하는 배우자였던  
(故)장은주님을 추모하는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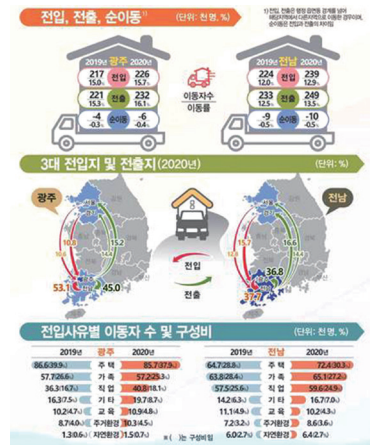
플랫폼	핵심분야	참여기관	선정연도
광주·전남	• 에너지신산업 • 미래형운송기기	• 2개 지자체 • 15개 대학 • 51개 혁신기관	2020
대전·세종·충남	• 모빌리티 ICT •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 3개 지자체 • 24개 대학 • 63개 혁신기관	2021

### 3)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의 활동

#### ▣ 광주전남지역의 위기 상황

##### ■ 지역의 인구감소 및 유출로 인한 소멸 위기 직면

- 광주전남지역 모두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광주전남지역 국내 인구 이동현황'에 따르면 전입자 대비 전출 인구는 광주 6,000명, 전남 1만 명 등 총 1만 6,000명으로 집계됨.
- 전남의 인구감소 위기 지역은 16개 군(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전국 지자체 중 경북과 함께 가장 많은 지역이 지정됨.<sup>12)</sup>



〈2020년 광주전남 국내 인구가동 현황〉<sup>13)</sup>

12) 정부는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이 지정됐다. 부산 3곳, 대구 2곳 등 일부 도심 지역도 포함되었다. 연합뉴스, 2021.10.18.,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7040400530>(검색일: 2021.10.15.)

13) NEWSIS, 2021.03.22., <https://mnews.sarangbang.com/detail/article/2751669>(검색일: 2021.10.10.)

문화재청은 궁궐, 지역문화재 등을 콘텐츠 개발하거나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원, 향교, 전통사찰 등 문화관광 체험과 홍보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유산 활용 체험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문화적 가치와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유산의 직접 체험, 관광자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7)</sup>

광주지역에서 문화재청 후원으로 추진 중인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표 2>와 같다.

**[표 2] 2021년 문화재청 지원 광주지역 문화유산관광 활용사업**

구분	내용	지역	사업명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전역	문화재를 새롭게, 해현경장(解弦更張)
		동구	2021 광주 동구 생생문화재 오감만족 풍류산책
		서구	서창(西倉) 들녘에 부는 바람
		남구	신나는 고싸움놀이로 고고
		북구	무등의 의병장을 만나는 시간여행 <김덕령 장군과 함께 놀자III>
	향교·서원	남구	광주향교에서 현대적 선비의 향기를 만나다
		광산구	무양 in the city
			월봉, 선(線)을 넘다
	문화재야행	동구	2021 광주문화재야행 ‘동구 달빛걸음’
	전통산사문화재	북구	산사에서 찾는 소확행, 더 힐링 스토리 II
	고택·종갓집	남구	고원희 가옥 1592 의병 종가의 이야기
		광산구	광산사계몽-한날의 고전

출처: 문화재청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400선 문화유산 유유자적 토대로 정리

내외국인 관광객의 문화유산관광 수요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국민여행조사 발표에 의하면 여행 시 관광지에서의 활동은 ‘풍경과 자연 감상’이 68.2%로 높았으며, 두 번째로 ‘식도락관광’(57.0%), ‘휴양/휴식’(54.7%) 등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유산관광 활동인 ‘유적지/고궁 방문’은 9.5%에 불과했다. 그리고 2018년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외래관광객 방문기간 중 관광활동으로는 문화유산관광 활동인 ‘유적지/고궁 방문’(42.6%)이 ‘쇼핑’(92.5%), ‘음식관광’(71.3%), ‘자연경관 감상’(54.4%)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듯 문화유산을 통해 관광객은 지역과 국가의 전통과 역사,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으며, 지역과 국가는 문화유산 관광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적·경제적·문화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지역 핵심문화 자원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내외국

7) 최경은·오훈성(2019),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더함 포커스\_ 정책칼럼

08 플랫폼: 지역혁신의 아이콘이 되다!\_ 선봉규

22 위드 코로나시대, 문화유산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로컬관광(G-관광) 생태계 조성\_ 이숙영

32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실태와 권익개선 방안\_ 오창민

44 로컬 거버넌스의 표상과 실상\_ 서정훈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포커스

# 정책칼럼



1. 플랫폼: 지역혁신의 아이콘이 되다\_ 선봉규
2. 위드 코로나시대, 문화유산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로컬관광(G-관광) 생태계 조성\_ 이숙영
3.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실태와 권익개선 방안\_ 오창민
4. 로컬 거버넌스의 표상과 실상\_ 서정훈

- 지역혁신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 배경에 기반을 두고 있음.<sup>10)</sup> 첫째,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지방대학이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게 됨. 대학은 지역의 경제·산업·사회·문화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약기관으로써,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와 직결됨;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대학 위주의 위기 극복 노력으로는 지역 전체의 수요와 발전을 고려한 대학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교육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지역 내 대학들이 각각의 강점을 결집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혁신을 통해 지역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셋째,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경제·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이 요구됨.
- 따라서 이러한 추진배경을 바탕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기업의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 2) 지역혁신플랫폼의 현황

- 2020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3개 플랫폼(광주전남, 경남, 충북)을 선정했으며, 2021년에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현재 총 4개 지역혁신플랫폼이 구축, 운영되고 있음.
- 지역혁신플랫폼은 국비와 지방비(전체 사업비의 30% 이상 부담)로 구성하여 5년간 진행되는 대형 국책사업임.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은 대학교육혁신과 핵심산업 분야 인재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 현재 총 4개의 플랫폼이 선정되어 사업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 현황〉

플랫폼	핵심분야	참여기관	선정연도
울산·경남 <sup>1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엔지니어링</li> <li>• 제조ICT</li> <li>• 스마트공동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 지자체</li> <li>• 13개 대학</li> <li>• 62개 혁신기관</li> </ul>	2020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약바이오</li> <li>• 정밀의료·기기</li> <li>• 화장품·천연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 지자체</li> <li>• 13개 대학</li> <li>• 44개 혁신기관</li> </ul>	2020

10) 교육부(2021), p.6.

11)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은 2020년에 경남지역만 참여하는 단수형 플랫폼이었다가, 2021년에 울산광역시까지 참여하는 복수형 플랫폼으로 선정되었다.

#### ■ 광주전남지역 청년의 역외 유출 심각

- 광주지역 청년은 최근 10년 동안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15~29세)가 2010년 22.27%에서 2020년 20.10%로 2.17% 감소. 전남은 2010년 청년인구 비율이 18.04%에서 2020년 15.55%로 2.49% 감소함. 중요한 것은 2010년 이후 매년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 광주전남지역 청년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음(2013년 전국 평균 39.5% vs 광주 33.9%, 전남 38.0% : 2020년 전국 평균 42.2% vs 광주 39.6%, 전남 37.9%)<sup>14)</sup>
- 광주전남지역 청년의 순 유출 현황: 광주는 2010년 156명, 2015년 6,390명, 2020년 3,137명임. 전남은 2010년 8,909명, 2015년 2,918명, 2020년 1만 2,168명임.
- 청년 인력 유출로 인한 광주지역 경제적 손실은 2014년 1,127억 원, 2015년 2,304억 원, 2016년 2,969억 원, 2017년 1,973억 원, 2018년 2,150억 원으로 추산됨. 전남은 2014년 1,476억 원, 2015년 1,477억 원, 2016년 993억 원, 2017년 846억 원, 2018년 1,117억 원으로 파악됨.<sup>15)</sup>

#### ■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의 청사진

-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은 2020년 복수형(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2개 지자체 참여) 플랫폼으로 선정되어 향후 5년간 지역혁신 사업과제를 수행
  - 참여기관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2개 지자체, 광주전남지역 15개 대학(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강대, 동신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순천제일대, 전남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조선대, 초당대, 호남대), 광주·전남테크노파크 및 지역기업 1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전남대학교가 플랫폼 사업과제의 총괄대학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목포대는 중심대학의 역할을 담당함.
-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의 목표는 대학의 혁신역량 극대화,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청년 지역 정착 유도이며, 지역협업시스템 구축, 현장맞춤형 지원 강화, 취업창업 기회 확대, 개방형 교육혁신 등 4가지 전략을 제시

14) 광주일보, 2021.08.11.,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628686200724922329>(검색일: 2021.10.10.)

15) 시민의소리, 2021.03.09., <https://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405>(검색일: 2021.10.10.)